

가을, 천만송이 국화향에 물들다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27일 축제 개막 6000㎡ 규모 국화공전 장관 이뤄 다양한 볼거리로 잊지못할 추억 선사

제14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보석처럼 빛나는 백제왕도 익산'이란 주제로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가을 추억여행 일번지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장에 들어서면 행복정원, 백제왕도정원, 꿈과 희망정원 등 3개의 힐링정원(면적 3만3,000㎡)을 만날 수 있다.

행복정원에는 정유년 닭의 해를 맞이하여 '어둠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행복을 기원하는 붉은 닭 꼬꼬와 2018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나무 전망대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백제왕도정원에는 미륵사지석탑, 왕궁리5층석탑 등 세계유산도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연출된다.

특히 올해부터 유료 입장되는 '꿈

과 희망정원'은 국화축제 특별전시장으로 꾸려진다. 무료전시장과 차별을 두고 가장 우수하고 특별한 작품으로 전시돼 아름다운 국화 속을 걸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또한 형형색색 아름다운 국화로 만든 6,000㎡ 규모의 국화공전은 장관을 이루며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다류대자, 현애, 분재, 입국 등 1,000여점의 예술국화들이 전시되는 실내 전시관은 작품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전시면적을 1,650㎡로 규모를 확대해 1,2관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국화작품전시관, 가품품 전시관, 전북농업기술원의 국화신 품종전시관, 미래농업 전시관, 국화 분재전시관 등 특색 있는 볼거리와 함께 사탕고백 포토존, 국화캐릭터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상설판매행사로 익산의 대표 농산물인 탐마루 쌀과 고구마, 국화빵, 국화화장품 등 100여종의 지역



제14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보석처럼 빛나는 백제왕도 익산'이란 주제로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우수 로컬푸드 판매관과 국화석고 방향제, 국화전원 수분크림만들기, 국화 필리비즈체험 등 다양한 국화 관련 체험관도 운영되며, 세리미아트 토이체험, 콘크리트 조명만들기 체험 등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쌀과 고구마, 닭을 활용한 닭곰탕, 닭발요리와 수연소면, 고구마 튀김, 수수부꾸미 등 생활개선익산 시연합회, 금미면, 어양동 등 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저렴한 가격에 특색 있는 먹거리도 만나 볼 수 있다.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자리 잡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년도 67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지역 로컬푸드 판매와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제14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축제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것"이라며 "백제의 역사와 가을의 대표 꽃 국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번기철 벼 수확현장 속으로

익산시, 현장 간담회 실시 새참먹으며 이야기 나누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속적인 농정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농번기 벼 수확현장에서 익산시 농민회(회장 한동웅) 회원들과 익산농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6일 오전 정현을 시장과 정명체 명예농업시장, 관계공무원 등은 막바지 벼 수확을 함께 하고, 새참을 먹으며 익산농업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웅 익산시 농민회장은 "농정국신설과 더불어 의욕 있게 추진하는 익산농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현재 농업·농촌·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올해에는 작년대비 2~3%이상 수확량이 줄었고 막노린재 피해로 상당면, 웅포면 일부 농가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현을 시장은 시 직불금 등 농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농업이 익산의 미래"라는 익산시 농업정책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올해 1월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고 22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익산농정의 파트너로 7월 7일에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혁신적인 농정을 위해 추진해 왔다. 민·관 거버넌스 농정의 일환으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특산물, 대규모 소비처 확보

서울 강서도매시장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와 서울 강서도매시장 운영기관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강서지사, 시장도매인발전협의회는 26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시장도매인 발전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노계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장, 임완상 시장도매인발전협의회장,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익산시 주요

원예농산물은 경매를 거치지 않는 품목별 전문 시장도매인에 연중 안정적인 유통채널이 줄어들어 생산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출하 시 가격저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산지와 소비지의 유기적 관계형성으로 소비처별 원하는 품종, 품위, 규격 등의 맞춤형 상품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출하가 예상된다.

시장도매인발전협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품목별 전문 시장도매인과 산지별 매칭을 통해 전라적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지속적 출하 및 생산자의 안정적 수취가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군산군도에 어린이 자전거 대여소 생긴다

자활센터-사복協-후원사 협약

고군산군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황인걸)는 26일 고군산군도지역자활협의회, 어린이 행복자전거 후원 업체와 '고군산군도 어린이 행복 자전거 운영 공동 협약식'을 체결했다.

'어린이 행복자전거 사업'은 기업에서 기증한 자전거에 기업 광고판을 부착하여 기업을 홍보하고 기증받은 자전거 대여 수익금의 일부를 고군산군도지역자활협의회에 적당히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으로 사용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 도레이 첨단소재, 한국서부발전, 군산도시가스, 롯데마트, 무궁자대 등의 기업에서 후원한 80여대의 자전거로 고군산군도에 '어린이 행복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오는 11월부터 대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황인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관광객들에게 공공성 있는 어린이 행복 자전거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학교, 치매가족 동반자 역할 앞장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도광역치매센터와 협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한명일)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박현 의과대학장과 한명일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치매이해교육을 통한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선도대학 선정에 따른 적극적 활동 협조, 인간 존중과 치매 친화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상호 각종 활동 및 행사 공동개최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의과대학장은 "원광대 의과대학은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작업



원광대학교가 25일 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료학과로 구성된 치매를 포함한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봉사, 연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명일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장은 "전라북도의 치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야간개관

군산시에서는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인근 벨트화지역의 전시관에 대해 평일 밤 9시까지 야간 무료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방 전시관으로는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구.18은행), 근대건축관(구.조선은행) 등이다.

박물관에서는 관람객 만족도를 높여주고자 '여성독립운동가 삶·이름·기억' 기획전 및 '따뜻함 손자수 연구원'의 자수공예전, 그리고 근대미술관에서는 두시영 화백 초대전 '이리랑, 열과 역사를 품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 공연, 행사 등을 확대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간여행마을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군산관광의 중심이 되고 할 수 있는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이 야간관광 명소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군산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야간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